

① 좁은 페어웨이 ② 두꺼운 리프 ③ 변덕스러운 바람

US여자오픈 골프 '3대 난관' 뚫어야 웃는다

시즌 두번째 메이저 오늘 개막
올림픽 클럽 "괴물같은 코스"
'역대급 난도'에 오버파 우승 전망

3일 밤(한국시간) 개막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좁은 페어웨이, 질기고 두꺼운 리프, 그리고 쌀쌀한 날씨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힘겨운 싸움을 예상했다. 대회가 열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올림픽 클럽(파71)은 100년이 넘는 역사에 지금까지 5차례나 US오픈을 열었던 곳이지만 여자 프로 골프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항상 어렵고 까다로운 코스에서 열리는 US여자오픈이지만 올림픽 클럽의 난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최근 치른 2012년 US오픈에서 웨브 심프슨(미국)은 4라운드 합계 1오버파로 우승했다. 한 명도 언더파를 친 선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US오픈보다는 덜 어렵겠지만, 오버파 우승을 조심스럽게 점치는 이유다. US여자오픈에서 오버파 스코어 우승은 2005년 김주연 이후 없었다. 지은희가 이븐파로 우승한 2009년 이후 모두 언더파 스코어 우승자를 배출했다. 올림픽 클럽이 어려운 것은 전장(6546야드)도 길지만 길고 질기고 두꺼운 리프와 좁은 페어웨이, 그리고 쌀쌀한 날씨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변

덕스러운 바람 등 선수들이 싫어하는 요소는 모두 갖췄기 때문이다. 2014년 US여자오픈 챔피언이자 올림픽 클럽에서 가까운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미국 교포 미셸 위 웨스트(한국 이름 위성미)는 "정말 어렵다. 괴물 같은 코스"라고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몇 주 전 이곳에서 라운드할 때는 리프가 이렇게 길지 않았다. 대회를 치르러 와보니 리프가 아주 길고 뻣뻣해졌다"고 혀를 내둘렀다. US여자오픈에서 두 차례나 우승한 박인비는 "인내심이 필요한 코스"라며 "바람도 불고 추위와도 싸워야 한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리프 잔디가 길고 질긴 편이라 리프에 붙어 가

면 타수를 잃는다고 보면 맞다"고 리프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박인비는 "결국 페어웨이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인비는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려운 코스가 입맛에 맞는다"고 자신감도 내비쳤다. 14번째 US여자오픈에 출전하는 제시카 코르다(미국)는 "US여자오픈을 열기에 딱 좋은 코스"라면서 "리프가 길고 스코어를 내기에 어렵지만 마음에는 든다. 이곳에서 경기가 기다려진다"고 코스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다 함께 드러냈다. 시즌 첫 번째 메이저대회 ANA 인스피레이션에서 우승한 패티 타바타나깃(태국)은 "리프와 나쁜 날씨에 맞서려면 심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세한대 사격은·동메달 전국대회 2회 연속 입상



여대부 공기소총 단체전 은메달을 딴 세한대 선수들. 왼쪽부터 이승현(4년)·안주연(3년)·고다혜(3년)·송민서(1년). <전남도체육회 제공>

세한대 사격팀이 2개 대회에서 연속 입상해 올 시즌 전망을 밝혔다. 세한대(총장 이승훈) 사격팀(감독 정재운)은 최근 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4회 대구시장배 전국 사격대회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세한대 사격팀은 이승현(4년), 안주연, 고다혜(이상 3년), 송민서(1년)가 여대부 공기소총 단체전에 출전해 총 1862.8점을 기록, 1877점을 쓴 한국체대에 밀려 아쉽게 2위에 올랐다. 50m 3자세 여대부 단체전에서도 이승현, 고다혜, 임두리(2년)가 출전해 3328-76x의 기록으로 한국체대와 충북보건과학대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 초 인천에서 열린 제22회 미추홀기 전국 사격대회에서 은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던 세한대는 이번 대회에서도 선전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세한대 체육부장 최광집 교수는 "지난 대회부터 연속으로 입상하게 돼 기쁘다"며 "매일 학교에서 나주국제사격장까지 왕복하며 훈련한 선수들이 일궈낸 결과"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인비 "메이저에 걸맞은 코스...우승 변수는 페어웨이"



여자 골프 메이저 대회에서만 7차례 우승한 박인비(33·사진)가 자신의 15번째 US여자오픈을 앞두고 "페어웨이를 잘 지켜야 한다"고 우승 변수를 지목했다. 박인비는 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올림픽 클럽 레이크 코스(파71·6457야드)에서 열린 제76회 US여자오픈 골프 대회 공식 기자회견에서 "올해 대회의 관건은 얼마나 페어웨이를 잘 지키느냐 하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2위 박인비는 올해가 자신의 15번째 US오픈이라는 사회자의 말에 "그런 줄 몰랐다"며 "처음 US여자오픈에 나왔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인비는 2004년 처음 US여자오픈에 나와 첫

탈락했으며 2008년과 2013년 두 차례 우승했다. 박인비는 그동안 자신이 US오픈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을 낸 이유에 대해 "내 경기 스타일이 어려운 코스와 잘 맞는다"며 "어떤 일이 벌어져도 침착성을 유지하는 편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대회도 인내심이 매우 필요한 코스"라며 "특히 리프 지역 잔디가 길고 굵은 편이라 그곳으로 공이 가면 보기는 자동으로 나온다고 해도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공동 6위에 올랐던 박인비는 "휘어지는 형태의 홀이 많고, 그린 경사도 있는 편"이라며 "그린 주위 리프는 아주 어렵지 않지만 페어웨이 옆의 리프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박인비는 "메이저 대회에 걸맞은 코스 셋업"이라며 "이런 곳에서 경기하게 돼 좋다"고 어려운 곳에서 강한 자신의 경기력에 대한 기대감도 감추지

않았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통산 21승, 메이저 7승 등을 거둔 그는 목표를 묻는 말에 "메이저 7승에 도달하면 8승, 8승을 하면 9승을 바라보게 된다"며 "기록에 신경 쓰기보다 매 대회 최선을 다해 우승하려고 노력할 뿐"이라고 답했다. 2004년 처음 US여자오픈에 나왔을 때와 비교해달라는 질문에는 "그때 아마추어 자격으로 나왔는데 정말 겁 없이 했던 것 같다"며 "그때는 보기만 해도 큰일 나는 줄 알았고, 더볼거리는 세상이 끝나는 일인 줄 알았다"고 웃어 보였다. 박인비는 이번 대회 1, 2라운드에서 리디아 고(뉴질랜드), 평산산(중국)과 함께 경기한다. 이 세 명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박인비), 은(리디아 고), 동(평산산)을 나눠 가진 선수들이다. /연합뉴스

호남대 관광경영학과 럭비동아리 생겼다



호남대학교 관광경영학과(학과장 정은성)는 최근 럭비동아리 '스파르탄' 발대식을 열었다. <사진> 관광경영학과 재학생 16명으로 구성된 스파르탄(지도교수 정은성, 한승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활동 제약에 따라 생활관광 활성화와 지역사회 레포츠활동 콘텐츠개발 등을 위해 팀을 꾸렸다. 광주시 럭비 저변 확대도 팀 결성 목표 가운데 하나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훈련에 돌입했다. 광주시 럭비 협회에서는 흥학회 부회장이 럭비기술 코칭 등 재능기부에 나설 예정이다. 이경희 사회경영대학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캠퍼스 활동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이 지덕체를 겸비할 수 있는 학과동아리 활동을 구성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대한럭비협회 최은 회장도 "대학생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럭비가 레포츠 활동으로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영상 격려사와 함께 럭비공인구와 장비를 후원했다. 정삼홍 광주시 럭비협회장은 "새로운 레포츠 활동으로 럭비를 학과 동아리로 운영하는 관광경영학과 재학생들을 응원하며 동아리 발전을 위해 협회에서 적극 후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내 공 받아봐!" 2일 열린 프랑스 오픈 테니스 본선 1라운드에서 미국의 코코 가우프가 세르비아의 알렉산드라 크루니치를 상대로 강력한 스매싱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가스공사 프로농구 전자랜드 인수

한국가스공사가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프로농구단을 인수한다. KBL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앞으로 연구 지역을 정할 예정이며 9월 중 정식 창단한다"고 밝혔다. 프로농구 전자랜드는 2003-2004시즌부터 리그에 합류해 2020-2021시즌까지 18시즌 동안 인천을 연고로 삼아왔다. 5월 말을 끝으로 전자랜드가 농구단 운영을 그만뒀으며 한국가스공사가 새 주인이 돼 2021-2022시즌부터 리그에 참여한다. KBL은 9일 오전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한국가스공사의 전자랜드 농구단 인수를 승인한다. 또 9일 오후 3시 30분 대구 인터파크호텔에서 KBL 이장대 총재,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 등이 참석한 인수 협약식을 개최한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농구단 인수를 계기로 대중에게 한 발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국내 스포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 2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링: 더 리스트 첼터
- 3관 크루엘라
- 4관 크루엘라
- 5관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
- 6관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
- 9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2067 라이더스 오브 저스티스
- 7관 씨네커플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 프로세서 앤 매드맨
- 8관 씨네커플 파이프라인, 셸

GAC기획공연 포커스 토니 운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21. 06. 26.(토)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3

2021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뮤지컬 <캐터빌의 유령> 일시: 2021.07.10.(토)-11.(일) 19:30, 15: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377